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다면?

김다은

어릴 적 동생과 놀고 있던 어느 날 밤, 일을 마친 아빠는 선물이든 봉투를 들고 오셨다. 아빠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셨다. 기대에 넘친 우리는 선물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엔 책들이 들어있었다. 인형이나 장난감을 상상한 우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책은 집에 이미 많았기 때문이다. 아빠는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다, “이 책은 아빠가 아빠로서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오늘 하루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단다.” 어린 나와 동생은 이해하지 못했다. 큐티가 매일 해야 하는 숙제처럼 보였다. 아빠는 큐티가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될거라고 하셨다. 어렸기에, 그러한 말들은 어렵게만 들렸다.

“아빠가 우리 다은이 다해 큐티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원하는 거 사줄게.” 그 말에 나는 큐티를 시작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매달 큐티를 끝내면 달력에 빠짐없는 스티커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엄마 아빠의 칭찬 또한 듣는 게 좋았다. 그렇게 나는 큐티를 계속했고, 나의 책꽂이는 그동안 꼬박꼬박 채운 큐티책들로 점점 쌓여갔다. 그렇게 나는 중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같이 더 많은 말씀을 나부도 싶어서 큐티 학생큐티모임도 시작했다. 아빠의 추천으로 시작한 큐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보게 될 말씀들이 기대가 되었다. 난 큐티가 점점 재밌고, 큐티가 좋아졌다.

그런데, 반복적이었던 나의 삶에 코로나가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학교 수업도 멈추었고, 큐티 모임도 중지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우리 네 식구는 하루 종일 같이 지냈다. 몇 주 후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몇 달로 늘고, 그 몇 달이 몇 년으로 늘어났다.

코로나로 인해 나에게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간이 많았는데 허비하기만 했고, 가족들과 항상 같이 있어도 대화가 줄었고, 열심히 하던 큐티도 조금씩 안 하게 됐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조용히 외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졌고 편한삶이 많은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방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모아놓은 큐티책들을 발견했다. 하나하나 열어보니 어린 손으로 열심히 적은 페이지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현재 내가 얼마나 큐티와 멀어지고 있는지를 느꼈다. 부모님과 친구들, 무엇보다 주님과 대화의 단절되었는지를 느꼈다. 나의 과거를 돌아봄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는 내 모습을 되찾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친구와 다시 인터넷으로 큐티를 시작했다. 작지만 나와 비슷한 친구 한 명과 동생들을 데리고 큐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들었다. 날짜를 정하고 우리는 매주 모이기 시작했다. 작았지만 즐겼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다는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눴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 울어주고 기도했었다. 이러한 일들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 아버지가 암 투병하는 친구를 위해 매주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중보 했다. 아버님의 암이 척추까지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호스피스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다. 나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도,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아는 형아의 아빠가 아프데요. 형아의 아빠, 그리고 아빠의 가족들도 웃는 일들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형은 아빠가 필요해요.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의 기도 조차 주님은 다 듣고 계셨다.

몇 주 뒤 우리는 기적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님이 점점 좋아지고 계시다는 문자가 왔다.

너무 신기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내가 다른 이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때마다 함께 기도할수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못 챙길 때가 훨씬 많다.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를 소홀이 여기고, 항상 함께 할 거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대한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지만 가까운 이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챙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큐티를 하면서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으니, 그 기쁨을 가족들과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명이 다 같이 매주 말씀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힘들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

큐티를 통해 더 모이려는, 더 기도하려는, 서로를 더 살피려는 가정이 되어 갔다.

우리 가정은 식구 하나하나 큐티를 향한 열정이 뜨거워졌고, 주의 말씀이 부족한 곳에 말씀을 나누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가 나눠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바뀌고, 치유되고, 채워지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말씀과 가정이다.
어릴 때 원했던 장난감과 인형들은 일시적인 행복이지만,
영원히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행복은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이다.

조그만 씨앗으로 시작한 식물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말씀이란 씨앗을 단단한 뿌리로 자라게 하고, 더운 날 그늘이
되어주고, 힘든 날 기댈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